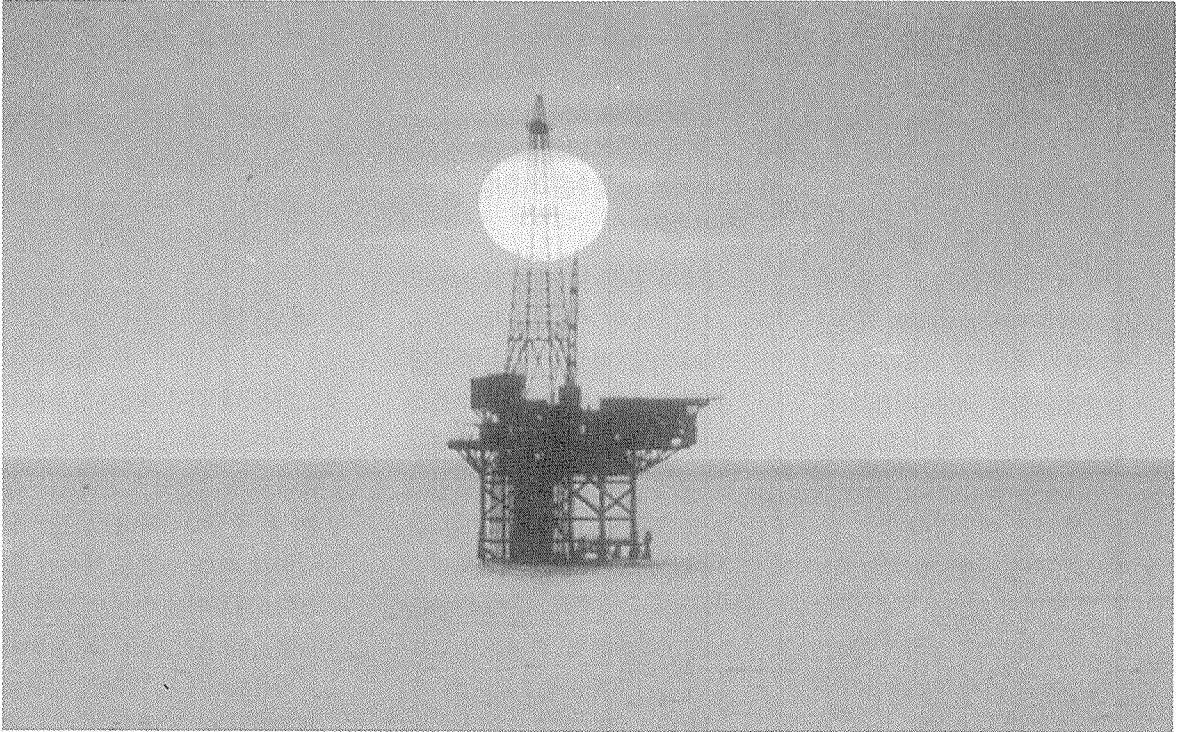


특집

개방화 · 자유화와 석유산업



# 변화 · 도전 · 과제 : 한국석유산업의 미래

李會晟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90

년대에 들어와 세계석유산업에 세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메이저 석유회사의 역할이 다시 증대하고 있다. 둘째, 과거 공산권 지배하에 있던 지역이 미래의 석유 주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 세가지 변화는 다음 세대 세계석유산업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한국의 석유산업은 이제 곧 2백만 B/D를 바라보게 된다. 우리 석유산업이 21세기 한반도 석유공급을 주도하고 나아가 세계적 석유기업으로 성장할 것 인가는 이 변화의 여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변화의 흐름과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석유산업의 역사라는 거울에 이 변화를 투영해 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세계석유시장은 미국의 주도하에 있었다. 그것은 미국의 기업이 강했던 이유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강력한 석유외교를 구사했기 때문이다. 일찌기 석유를 가장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인식한 미국 정부는 국무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미국 기업이 주요 산유국에서 석유개발권을 획득하는 것을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화란 등의 석유자본과 맞서는 데도 적극적 역할을 했다. 미국 메이저의 중동 진출은 영국, 프랑스, 화란 등의 식민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미국 정부는 메

이저를 외교정책의 효율적 도구로 활용했다.

1930년대, 제2차대전 그리고 그 이후 2차대전의 여파가 미치던 전후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의 식민지세력의 약화는 소련을 제외한 전세계 석유산업 조직과 그 운용에 있어 미국이 헤게모니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Royal Dutch Shell, Anglo-Persian(현재의 BP), 그리고 CFP(현재의 Total)등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Anglo-Persian과 CFP가 이 시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 보호 육성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Royal Dutch Shell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부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Shell이 미국의 정책에 대해 적절히 순응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영국이 이집트와의 수에즈운하 관할권 다툼에서 패하여, 영국 군대가 수에즈 동부지역에서 철수한 사건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 비공산권 지역에 있던 석유매장량의 대부분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비공산권역내에서 발생하는 석유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석유공급에 있어 효과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미국에 의해 지배된 석유산업은 급기야 석탄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 및 서유럽을 석유의존국으로 바꾸었

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타 지역이 석유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하는데 성공했다. 연료대체의 전 세계적 확산은 미국 석유회사들의 영향력을 절정에 달하게 했으며, 이 결과 미국 회사들은 낮은 비용으로 생산된 원유와 제품의 세계적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메이저의 지배는 산유국, 석유수입국 정부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례를 낳게 되었다. 오일 달러에 대한 배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산유국-메이저의 갈등은 유전의 개발, 생산, 소유에 걸친 제반 문제로 확산되었다. 산유국들은 석유개발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국유화조치가 단행되었다. 석유수입국들은 외국 기업에 자국의 석유공급을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에 불안감을 갖게 되었으며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응책은 규제 도입, 국영 석유회사의 설립, 정부차원의 석유 거래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메이저의 수익은 석유개발에 있다. 산유국의 국유화 조치로 메이저는 저가원유에 대한 접근을 상실했으며 동시에 고가원유를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확보해야만 했다. 원유가격 상승은 부분적 보전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메이저의 수익 상실로 감수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감소 때문에 석유회사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상황이 역전됨에 따라 미국의 석유회사들 뿐만 아니라 기타

## 국제석유시장은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미국기업 주도의 상황으로 재편되고 있다.

석유회사들은 원유공급의 감소를 인정 내지 체념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 다변화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각국 정부와 IEA 및 여타 에너지기구들은 1979년 이후, 석유사용을 줄이면서 석유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제석유산업은 사양산업처럼 여겨졌으며 석유회사의 존립여부 자체가 큰 이슈가 되었었다.

1980년대 초만해도 석유회사들의 입지는 거의 중국에 다다른 느낌이 있었다. 「만약 그들중 존립이 가능하다면 어떤 회사가 될 것이며 얼마나 오래 존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었고, 국제석유공급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었다. 1985년 웨브론의 걸프 매입합병은 세계석유산업 합리화 조정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겨우 10여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다시 역전되고 있다.

석유가격이 폭락하고 연이어 석유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원유탐사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석유산업의 전부분에 걸친 비용-효율성의 문제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특정 석유산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원천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경제성 창출과 리스크 감소를

위해 수직통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널리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수직통합 형태의 전통적인 미국계 국제석유회사들이 중심위로 복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미국 석유회사들의 경영능력, 기술, 투자능력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소련 지역의 경우, 정치적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이 지역은 미국 기업들에게 있어 거의 무한한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중앙통제는 남아있으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도 미국 석유회사들은 환영받고 있다.

非-OPEC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원유를 생산, 정제, 판매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국제 메이저에 대한 문호가 넓어지고 있다. 또 OPEC 국가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영석유회사들이 탐사 및 생산/개발에 있어 첨단 신기술을 체득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능력 확장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OPEC국가들도 미국 기업들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투자기회를

서 메이저의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향유하고 있다. 석유는 물론 천연가스 분야에도 다양한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다. 기술적, 시장적 측면에 받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메이저의 재등장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항은 국제 석유분야에서 政經 제휴의 관계가 다시 모색될 수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이전과 비슷한 미국 외교정책과 대규모 미국석유회사들과의 제휴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석유의 지정학적 현실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미국과 사우디간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라크에 의한 쿠웨이트의 일시적 점령의 여파와 소련 연방의 붕괴라는 맥락에서 양국이 상호 근본적인 이익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우디가 아람코를 국유화한 이후,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 및 소련방의 붕괴가 있기 전까지, 사우디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석유 정책을 모색했다. 또 미국도 사우디 보다는 이라크에 대한 지원을 통해 페르시아만에서의 소련과 이란의 팽창의도를 저지하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미국 지위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그러나 1990년 걸프전쟁과 소련방의 붕괴 과정을

## 업계 ·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Energy Security를 바탕으로 한 장기전략에 관한 구상을 논할 때가 왔다.

겪으면서 다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되돌아갔다. 석유시장 연구의 대가인 화란 에라스무스 대학의 피터 오델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 미국은 군사력으로 사우디의 주권과 현 집권층을 보호한다.
- 사우디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수입에 대해 1993년 실질가격으로 물량공급을 보장하며, 미국은 사우디원유에 대해 일정량의 의무수입을 보장한다.
- 이라크의 제재해제는 세계 원유 수요가 증가할 때에 고려한다.
- 사우디는 유가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기존 유전의 개발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신규 유전을 활용한다. Aramco의 구 파트너인 Exxon, Mobil, Texaco, Chevron등이 이러한 개발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이러한 양국의 결합된 정책 목표는 관련 당사국인 양국의 이해관계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국제 석유산업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미국과 사우디의 협력관계는 결과적으로 OPEC의 지위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우디 이외의 다른 OPEC 가맹국들은, 각각 세계 최대

의 석유수입국과 석유수출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사우디가 현재의 유가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실제로 석유가격 형성에 있어 그들의 영향력은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미국과 사우디간의 합의사항에 그들의 정책을 맞추어 가는 것일 뿐이다.

둘째, 사우디-미국의 특수관계는 아람코의 구 지주회사인 네개의 메이저에게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들은 매우 낮은 비용으로 추가적인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류부문에서 상당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석유산업의 他부문에 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하류부문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고 국제석유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희망하는 사우디 Aramco와의 협조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요약하면, 미국과 미국기업에 의한 국제석유산업의 지배가 거의 사라지고 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완전히 한바퀴를 돌아 다시금 미국과 미국기업들이 세계석유산

업의 헤게모니를 쥐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석유질서는 미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기축으로 한다.

한국의 석유산업은 이 변화의 물결을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 업계 ·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장기전략에 관한 구상을 논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 구상은 무엇보다도 Energy security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출발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량이 1일 5십만 배럴에 불과하고 개인당 국민소득은 1,600불에 불과했으며 우리의 안보 외교는 냉전의 등식하에 미국이라는 우산속에 안주할 때 만들어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 정치 · 경제 · 군사 제반 분야에서 위상을 높혀가는 중국의 존재, 간과할 수 없는 러시아와 일본의 요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미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Energy security는 이 요소들과 함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여건에서 한국의 미래 좌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더욱 그러하다. ♣